 기획재정부		보도참고자료	
보도일시	2021. 6. 21.(월) 조간	배포일시	2021. 6. 18.(금) 16:00 엠바고 : 2021.6.20.(일) 12:00
담당과장	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장 윤정인 (044-215-8720)	담당자	박준석 사무관 junseokpark@korea.kr
	서울시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장 정영준 (02-2133-5210)	담당자	금융산업팀장 이선경 (02-2133-5240) 김남지 주무관 (02-2133-5244)

중미경제통합은행(CABEI), 한국사무소 입지로 서울시 선정 **- 중미경제통합은행 한국사무소 연내 개소 추진 -**

- 중미경제통합은행*(CABEI)은 최근 한국정부와 서울시에 한국 지역사무소 입지를 서울 여의도(ONE IFC 16층, 서울국제금융 오피스)로 확정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.

*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: 중미 균형개발 및 경제통합을 위한 투자 지원 목적으로 '1960년에 설립된 인프라-에너지 특화 다자개발은행 (주요사업) 인프라에너지 부문 (사업승인규모 '19년) 26.4억불 (지원대상) 공공(86%)[\[참고\]](#)

- (CABEI 회원국 구성 및 지분율 비중('20.12월))

역내국 (8개)	엘살바도르(10.2%), 니카라과(10.2%), 온두라스(10.2%), 코스타리카(10.2%), 과테말라(10.2%), 파나마(5.4%), 도미니카 공화국(5.1%), 벨리즈(0.36%)
역외국 (7개)	대만(11.1%), 한국(9.0%), 멕시코(4.4%), 스페인(4.0%), 아르헨티나(3.7%), 콜롬비아(2.9%), 쿠바(0.71%)

* 밑줄 : 이사국(총 12개국), 파란색 : 영구이사국 / 아르헨-콜롬비아 : 공동 이사국 구성

【 선정 배경 】

- 이번 사무소 입지 선정 확정 통보는 우리나라의 동 은행 가입('20.1.10일) 첫 해인 '20.3.31일 동 은행 이사회에서 의결된 한국사무소 신설 결정의 후속조치이다.
- 동 사무소의 서울시 유치는 금년 3월 초 부터 진행된 입지 선정을 위한 구체적 협의의 결과물이며, 이를 계기로 서울시와 동 은행은 양해각서 체결 등 입주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.

【 한국 사무소 신설 의의 】

- 중미경제통합은행은 우리나라와의 협력에 관심이 높은 국제 금융기구로, 가입 2년차임에도 신탁기금*·대외경제협력기금** (EDCF)·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*** (KSP) 등 다양한 협력기제를 활용해 우리나라와 의미있는 협력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.

* 그간 신탁기금 승인사업 9건 중 7개 사업(573만불)에 한국기업/기관 참여 예정

** '17년에 승인된 EDCF-CABEI 협조융자 사업에 한국 4개 시공사 선정

*** CABEI를 통한 KSP 지원사업 : 과테말라 화물수송 철도 체계 구축 예비타당성 조사

- 특히, 한국사무소는 우리 기업·인력과 동 은행과의 네트워킹을 강화시켜 우리가 강점을 가진 친환경 에너지·교통 인프라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·인력의 중미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, 이를 통해 신흥시장인 중미시장 선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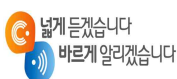
- 또한, 이번 사무소 유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금융기구 중 세계은행*(World Bank)에 이은 2번째 성과 사례로, 국내 국제금융 인프라 강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동북아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.

* 세계은행 그룹(IBRD, IDA, IFC, MIGA) 한국사무소는 '13.12월에 송도 개소, 그 중 국제금융공사(IFC) 및 국제투자보증기구(MIGA) 사무소는 '17.2월 서울로 이전

- 한국정부는 중미경제통합은행 한국사무소의 연내 개소를 목표로 구체적 설립·운영방안 등에 대해 동 은행측과 지속 협력할 계획이며,

- 대한민국의 동북아 금융허브로의 도약을 위해 우리나라가 가입한 다른 국제금융기구의 한국사무소 유치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다.

※ <참 고> 중미경제통합은행(CABEI) 현황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@korea.kr



참 고

중미경제통합은행(CABEI) 현황

- ☐ (설립) '60.12월, 中美 5개국*이 지역 균형개발 및 경제통합에 기여하는 공공·민간투자 지원을 위해 설립(본부: 온두라스 테구시갈파)

* 창립회원국(5개): 엘살바도르, 니카라과, 온두라스, 코스타리카, 과테말라

- ☐ (자본금) 수권자본금 70억불 ('20.12월 기준)

- ☐ (총재) 단테 모씨(Dante Mossi), 국적: 온두라스('18.12.1일 취임)

- ☐ (회원 구성 및 회원국별 지분을 비중('20.12월))

역내국 (8개)	엘살바도르(10.2%) , 니카라과(10.2%) , 온두라스(10.2%) , 코스타리카(10.2%) , 과테말라(10.2%) , 파나마(5.4%) , 도미니카 공화국(5.1%), 벨리즈(0.36%)
역외국 (7개)	대만(11.1%) , 한국(9.0%) , 멕시코(4.4%) , 스페인(4.0%) , 아르헨티나(3.7%), 콜롬비아(2.9%), 쿠바(0.71%)

* 밑줄 : 이사국(총 12개국), 파란색 : 영구이사국 / 아르헨-콜롬비아 : 공동 이사국 구성

- ☐ (이사) 현재 12개국이 이사직 수임

○ 창립회원 : 과테말라, 엘살바도르, 니카라과, 코스타리카, 온두라스

○ 비창립역내회원국 : 파나마, 도미니카공화국

○ 역외회원 : 대만, 한국, 멕시코, 아르헨티나/콜롬비아, 스페인

- ☐ (주요 사업) 인프라·에너지 분야 대출이 50% 이상 차지

○ (지원규모) '19년 26.4억불

○ (중점 지원분야) ①인프라/건설, ②농·임업, ③에너지, ④공공행정, ⑤교육

○ (지원대상) 공공(86%), 민간(14%) ('18년 대출 비중)